



사람 · 어울림 · 꿈

광장



4.27 DMZ 평화인간띠잇기



부천YMCA

사랑



꿈

아름다운



광장

봄호(3월·4월·5월) 통권 제160호

01	머릿글	2	04	교실탐방	17
02	부천대장 신도시와 부천의 미래 김기현			[아기스포츠탄]	
	특집	6		YMCA 지구잔치 김해미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아빠캠프를 가기 위하여 이재원	
	대장동 신도시 개발계획 최진우			[어린이Y] 북·중·접경지역 평화기행	
	성명서			압록에서 백두까지 최정용	
	4.27 DMZ 평화인간띠-			[청소년문화의집]	
	폭력의 사슬(chain of violence)을 끊는			춤, 그 놀라운 순간 곽동오	
	평화의 인간띠(human chain) 정종원				
03	클럽이야기	13	05	의창한담(醫窓閑談)	28
	[살한툼]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식생활의 중요성 강선순			집단 율화병(鬱火病) 박종훈	
	[등대생협]		06	회원광장	30
	2019년 등대를 소개합니다			한국YMCA 새 목적문	
				故 서태경 고문 5주기 추모사 강창구	
			09	함께하는 문화산책	34
				걷기 : 걷는 일 왕정현	
			10	만화로 보는 밥상톡톡	36
				밥상 열, 물 제대로 알고 마시자! 연은미	
			11	우리 생활문화 이야기 (39)	38
				"봄은 보는 계절" 한면희	
			12	부천Y 이모저모	40
				주요일정 및 클럽일정	46



한국YMCA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 새 목적문 전문,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부천대장 신도시와 부천의 미래

김 기 현

(부천YMCA 사무총장)



김포공항 인근 논습지 240만평(부천 120만평, 강서 120만평)은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로서의 논의 생물 다양성을 강화하자”고 각국이 결의하고, 법정보호종 32종(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이 서식하는 수도권 생태계의 보고(寶庫)이지만 120만평 중 104만평이 ‘부천대장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5월 7일(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으로 ‘부천 대장 신도시’를 제3차 발표지구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가 포함 되는 104만평을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로, “1/3은 공원으로 만들고,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해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지능형로봇, 첨단소재, 항공.드론 등 신산업을 집중유치”하고, 하수처리장 상부를 덮고 멀티스포츠센터로, 굴포천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교통대책으로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S(Super)-BRT(간선급행버스)로 연결하고, 고강IC와 서운IC를 신설하여 진출입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부천시에서 진행하던 ‘대장동 산업공단’(70만평)이 ‘부천대장 신도시’(104만평)로 훨씬 규모가 커졌고, 국토부 사업으로 확대되다보니 하수처리장, 굴포천 등 여러 가지 사업도 포함되었지만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검증이 있어야 한다.

첫째, 인구밀도 - 가뜩이나 비좁은 부천에서 부천시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2천 700세대

부천 춘의,역곡 택지지구 개발사업 5천 500세대

오정동 미군부대 스마트시티 3천 70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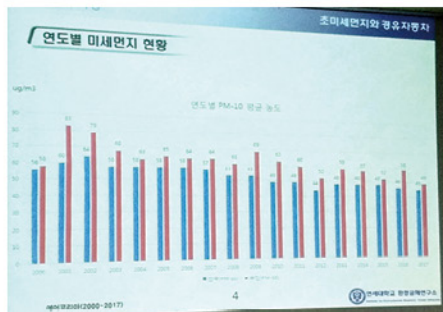
상동 영상문화단지 5천 500세대

+ 대장동 신도시 2만 세대

위 개발사업이 다 이루어지면 약 3만 7천 400세대 × 평균 3명 = 약 112,200명이 증가한다. 그럴 경우 부천의 인구밀도는 약 18,190명/㎢으로 현재 인구밀도 1위 서울을 약 1,800명/㎢ 상회한다.(인구밀도 3위인 안양은 10,418명/㎢으로 무려 8,000명이 적다.) 인구밀도가 늘어나면 함께 발생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녹지율 감소, 초고밀도 도시화, 불투수율, 열섬현상 증가와 이로 인한 환경,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미세먼지 - 부천시는 시장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관실을 만들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하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화) 개최된 부천시 주최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임영욱 부소장(연세대 의과대학 환경공학연구소)이 발표한 <연도별 미세먼지 현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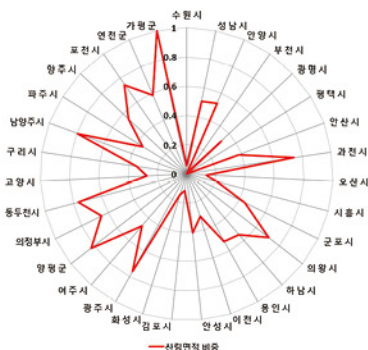
파란색이 전국 평균이고, 빨간색이 부천 평균이다. 그래프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SNS를 통해 “(부천대장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대중교통이 신속하고 편리해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생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과학적, 구체적 예측자료와 시민적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부천은 분지형 도시이고, 대장동 120만평 논습지는 바람길에 해당된다.



셋째, 더 열악해질 환경지표

부천의 산림면적(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등)은 전체 면적의 13.6%로 전국 최하위, 환경부 발표 결과(2013년) 부천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율¹⁾**이 61.7%로 전국 최악의 오명을 뒤집어썼다.(인구밀도 1위인 서울의 불투수율은 54.4%였다.)

도시공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원도심 및 공장지역의 녹지율은 10% 미만이고, 경기도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3.11㎡로 최하위이다. (2014년 산림청 통계): 수원시 4.2㎡, 고양시 4.42㎡, 성남시 6.11㎡, 용인시 5.75㎡로, 안산시 5.77㎡)



5월초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한 **경기도 SDGs(지속가능목표)**에서 부천은 물순환과 생물다양성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목표 15: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증진시킨다.” (왼쪽 그림) 분야는 “경기도 산림면적 비중은 2006년 52.15%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2015년 51.11%로 줄어들었

1) 아스팔트 등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공간으로, 불투수율이 높으면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막아 지하수가 고갈되고, 집중호우 시에는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물이 저지대로 몰려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으며, 가평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81.2%를 차지하는 반면 평택시(18%), 부천시(18.8%)가 가장 낮음.”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식량자급률 48.9%(2017년)**,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3.4%**에 불과한 나라에서 수도권 논습지 100만평을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후재앙이 일상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선진국 식량자급률은 캐나다 121%, 프랑스 83%, 미국 92%, 이탈리아 80%, 일본 70%이다.

그 외에도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이 올바른 부동산정책인가?** 하는 점도 있다. “땅보다 땀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토지정의 관련 전문가들은 “이상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근본 부동산 정책인 보유세 강화를 극구 회피하고 단기 시장조절과 주거복지에 치중해왔다.”며 “이런 정책으로는 땅 투기를 잡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제기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이 국토 균형발전과 역행하여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문제, 신도시 추진 자체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시작되었고, 가장 큰 장점을 “서울도심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라고 할 때 **부천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고, 베드타운화 될 우려가 있다.**

아래는 ‘부천대장 신도시 추진일정’이다. 부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국토부와 부천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YMCA를 비롯한 대장들넉 지키기 시민행동은 시민들과 함께 문제제기하고, 참여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5월 7일(화)~21일(화) : 공공주택 지구지정 의견청취 주민공람

2019년 6월~약 3개월간 : 전략환경영향 평가

2019년 8월~9월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2020년 초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공주택 지구지정

2020년 12월경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계획 승인

2021년 8월경 : 공사착수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대장동 신도시 개발계획



최진우

(부천YMCA 이사,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부천YMCA는 3대 회원운동 과제로서 대장들녘 토지의 공공적 가치와 시민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2017년부터 가족농부사업, 재두루미와 금개구리 등 생물다양성 탐사, 8차례 생명포럼 운영, 지방선거 참여 및 정책제안, 시민캠페인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장덕천 부천시시장과의 면담에서 시민사회단체는 70만평 대장동 개발 추진과정에 시민공론화 과정을 요구하였고, 장덕천시장은 계획이 수립되면 논의과정에 시민사회를 참여시켜 공론화과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대장동 미래 공론화 요구는 묵살하였고 국토부에 신도시 개발을 요청하여 104만평 송두리째 개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천은 더더욱 숨 막히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23개 단체와 4개 지지단체(광명~서울민자도로 반대 공동대책위)는 5월 9일 시대착오적인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하는 환경농단에 일침을 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장들녘의 신도시 개발로 나쁜 공기가 정제되고 초미세먼지, 열섬현상이 가속화되어 아이 키우기 힘든 최악의 환경이 우려됩니다. 이미 부천은 자연녹지

을 전국 꼴찌, 불투수율 전국 최악,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 수준으로 시민의 피로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개발지역 지정에 있어 부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의 기존 개발계획(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 역곡 공공주택지구 개발, 중동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개발 등)과 연계하여 신도시 2만호 건설은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 인구는 현재 약 87만명, 인구밀도 16,270명/㎢로 서울 다음이지만, 90만명만 되어도 국내 1위, 세계 6위(2016년 포브스지 발표기준)가 됩니다.

부천을 수도권 초고밀도 도시, 그린벨트 자연녹지가 부족한 도시, 장래 미래세대 유보지가 없는 도시,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국토부와 부천시의 계획을 규탄합니다.

성명서

국토부 대장신도시 발표 후 부천시민 반응
‘부천은 숨 막히는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

대장동 바람길 막는 신도시 개발
‘나쁜 공기 정제...초미세먼지, 열섬현상 가속화’
아이 키우기 힘든 최악의 환경

부천시, 대장동 미래 공론화 요구 묵살
느닷없이 104만 평 송두리째 신도시개발 발표

자연녹지율 전국 꼴찌, 불투수율 전국 꼴찌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 수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인구밀도
부천시민 피로도 최고조

부천시민사회, 부천시의 일방행정·불통행정
시대착오적인 난개발 환경 농단에 일침

국토부와 부천시가 대장동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과정에 부천시민은 없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특히 대장동이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미세먼지, 열섬화 현상 등 87만 부천시민의 생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이를 감추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점에서 끌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부천시가 시민을 저버리고 대장동이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정책을 강행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부천시장이 대장동 개발을 강행한다면 부천시민사회단체 나아가 87만 부천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대부분 부재지주), 땅장사·집장사식 공기업과 주택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인들의 감춰두었던 토건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정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수도권 도시확장 및 인구집중은 국토 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는다.

좁은 면적의 도시에 국내 최고의 인구밀도(현재 서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천시에 살아가야 하는 시민의 숨통은 어찌 해결할 것인지 막막하다. 부천은 정부 통계상 불투수율 전국 꼴찌, 자연녹지율 전국 꼴찌,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시이다.

대장들녘 논습지는 공익적 가치가 풍부한 땅이다. 한강과 연결된 논습지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 쌀 생산뿐만 아니라 재두루미, 제비, 금개구리, 맹꽁이 등 다양한 야생생물에 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땅이다. 차고 신선한 바람을 생성하여 도시의 폭염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의 중요한 녹색 인프라이다. 도시 어린이들이 들뜬에 뛰어놀며 생태감수성을 일깨우고,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야외 체험 학습장이다.

지난해 새로운 경기위원회 청원사이트에 「부천 대장들녘의 미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이 결정해야 합니다」가 조회수 3338개, 좋아요 2241개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장덕천 시장과 시민단체의 면담에서 시장은 시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느닷없이 대장들녘 104만평 송두리째 신도시개발로 되돌아 왔다.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에서는 주민들의 개발반대 민원으로 국토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부천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다수의 부천시민이 개발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개발을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프레임이다.

국토부는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뿐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지

도 못하면서 개발만 부추기는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 투기 조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국토부가 수도권에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발지역 지정에 있어 해당 도시의 친환경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특히 부천대장지구는 지자체(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신도시로 지정되는 사례인 만큼 개발로 인한 장래 도시계획의 변화와 장단점을 중앙관청이 철저히 고려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대장들녘의 신도시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초고밀도 도시의 길을 열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멀어지고 환경피해와 재앙이 우려된다. 대장들녘의 토지는 사고 팔수 있는 '사유재'이지만 그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공유재'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부천의 미래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도록 하겠다.

〈우리의 요구〉

1. 대장들녘의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사업을 폐기하고 대장들녘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며 원주민과 도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대안을 마련하라.
2.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천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라.
3. 생태계서비스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시 논습지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과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공공부담, 민간부담)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2019년 5월 9일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경기민예총 부천지부, 남북평화재단부천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아이쿱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YMCA, 부천YWCA, 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천주교인천교구 부천노동사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환경생태연구재단)

폭력의 사슬(chain of violence)을 끊는 평화의 인간띠(human chain)



정 종 원

(부천YMCA 이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 4월 27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DMZ 인간띠 잇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철원 최전방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여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철책 옆을 걷고, 그 앞에서 북녘을 바라보니 세삼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군생활 중이었던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 지 20여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과연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시민으로



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평화의 인간띠 잇기에 참여하고, 함께 평화를 염원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기쁨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옴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간띠 잇기가 평화의 밑알이 되어 한반도의 통일과 전세계의 평화 물결로 이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화의 인간띠 잇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발트해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1989년 8월 23일, 200여



1989년 발트해 3국의 독립과 평화의 200만명 인간띠
(출처:https://www.reddit.com/r/HistoryPorn/comments/9910np/baltic_wasa_peaceful_protest_against_soviet)

만 명이 총 623km의 인간띠를 이어,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염원하였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소련의 속국으로 불행한 근대사를 갖고 있었던 발트해 3국은 인간띠 잇기를 통해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1986년 미국 Hands Across America(빈곤퇴치 자선행사, 500만명), 1997년 파리 평화의 인간띠(40만명, 파리 36km를 둘러쌌), 1999년 포르투갈 리스본 동티모르 폭력 종식과 평화 염원(30만명, 20km), 2004년 타이완 228 Hand in Hand(1947년 2월 28일 장개석 정부에 의하여 대만 원주민인 본성인에 대한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 2만 - 2만 8천명 사망 추정, 200만명, 500km), 2010년 독일 함부르크 원전 폐쇄 요구(100만명, 크림웰 원전에서 브룬스뷔텔 원전까지 120km) 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고,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해 여름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대회 및 총회에서는 “평화의 바람” “통일이 멀다하면 안되겠구나”와 같은 캐치워드 아래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지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합의 결렬, 여전한 비이성적 색깔론,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에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정부, 아직도 대결과 반목, 그리고 전쟁을 운운하는 극우파들까지... 과연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이리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요? 우리가 평화를 염원하는 것은 왜 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평화스러운 시기가 얼마나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정치학 수업을 듣고, 지금은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이, 결국 인류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이며, 그 폭력의 사슬을 끊고 평화로 가기 위한 여정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4월 27일 있었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DMZ 인간띠 잇기’는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는 결코 폭력적인 대결의 산물이 아닌, 폭력의 사슬(chain of violence)을 끊고, 인간띠(human chain)로 인류애와 인간성을 회복하여, 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희망의 연대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쌀한톨

식생활의 중요성



강 선 순
(쌀한톨클럽 지기)

YMCA와의 인연은 2011년 지인의 소개로 ‘식생활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천시에 있는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시작한 계기는 어릴적부터 몸이 약한 큰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감기는 일 년 내내 달고 살았고, 폐렴, 중이염, 장염, 수족구, 구강염, 피부병 등 유행하는 병은 죄다 걸려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괜찮아질 거라는 어른들의 말에 희망을 가졌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1년 사이 장염과 폐렴으로 두 차례나 입원을 했습니다. 입이 짧고, 자주 아픈 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많이 잘 먹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하다고 먹인 음식이 내 아이에게 독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교육 수료 후부터 우리 집 식탁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가던 대형 마트에 가서 각종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을 사 먹는 것을 과감히 멀리하고 생협에서 건강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반대도 있었지만, 남편을 설득하고 아이들의 입맛도 바꾸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식생활을 바꾸고 나니 늘 병원 약을 달고 살던 큰 아들이 점점 더 병원과는 멀리하고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식생활이 우리의 건강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쌀한톨 클럽 활동을 통해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쌀한톨에서는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활동과 관련 영상을 찾아 함께 공부하며 지역의 유아·초등·중·고등학생·성인 대상의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부천시 식생활급식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쌀한톨은

소비자의 몸과 지구를 살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돕기 위하여, 먹거리에 관해 전문적이고 꾸준한 연구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먹거리 소비문화를 올바르게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한 YMCA 클럽으로 매월 2번의 정기모임을 통해 공부하고 나누는 생활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기모임 :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월례회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문의 : 강선순 지기, 이선화 부지기(회원운동팀 325-3100)

등대생협

2019년 등대를 소개합니다

점등

2019년 3월 27일부터 등대 점등이 시작되어 낮등대 11개, 저녁등대 7개로 총 18개 등대가 점등을 마치고 110명의 촛불이 주 1회 모임(저녁 격주 1회)의 등대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지기월례회

지난 4월 25일(목) 오전 10시에는 낮 등대, 5월 16일(목) 오후 7시에는 저녁등대 촛불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기월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촛불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지기월례회에서는 마음나눔과 등대와 촛불소개, 환대의 시간을 갖고 지기별 모임으로 흩어진 2부활동(사김-살림-밥상-독서활동)에서는 2부활동의 의미와 다음 달 함께 나눌 활동을 서로 배우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13년차 등대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녁등대에서는 선배가 아니라 신입”이라며 다시 처음의 자리를 다지는 '꿈품등대'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벗바리등대'로 점등한 YMCA 여성 이사 5명이 함께하게 되어 저녁등대 촛불들에게는 더욱 든든하고, 전체 촛불들에게도 즐겁고 유쾌한 등대활동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낮등대 월례회



저녁등대 월례회

낮등대



<그래요>



<동글이>



<등대신화>



<따또>



<무지개>



<미인>



<사랑이>



<열정거북이>



<올라잇>



<평강공주>



<포도넝쿨>

저녁등대



<공꾸는>



<공품>



<미소>



<밤나들>



<벚바리>



<벚타는>



<은하수>

2019년
등대 소개

아기스포츠탄

YMCA 지구잔치



김혜미

(솔내음반 섬김지기, 조수아 어머니)

아기스포츠탄에 아이를 보내며 처음 공동체 한마당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많이 생소하고 낯설었지만 2번의 행사를 거치며 엄마들과 의견도 나누고 직접 참여도 하면서 행사 취지와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작게는 YMCA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가자는 한마당은 그 취지가 참 남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처음 교류하는 엄마들에게는 힘든 행사였다. 부모님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도움으로 YMCA의 수고로 완성된 행사,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며 한마음이 되어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고 부모로서도 많이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어왔다. “엄마 YMCA에서 하는 지구잔치 언제야?” 이 물음만으로도 나는 아이에게도 참 의미 있고 참된 교육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진행된 행사에서 엄마들이 직접 들려주고, 함께 체험함으로써 지구, 환경, 함께 살아가야 할 동물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좀 더 선명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았다. 우리 아이도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이렇게 하면 지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어느 아이는 북극곰이 아프다며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변화하는 아이들의 말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사랑할 우리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진행상 좀 더 보완 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공동체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오래 이어 나가길 바란다. 그 의미와 취지가 참 따뜻하기 때문이다. 나와 너와 우리가 모여 함께 만드는 그 무엇인가는, 과정은 고되고 힘들지만 분명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아기스포츠탄

아빠캠프를 가기 위하여



이재원

(아기스포츠 씨앗반 이시민, 놀푸른반 이시윤 학부모)

5월에는 여러 행사가 많다.

내가 속한 모임 중에 하나에선 5월 마지막 주에 제주도 여행이 계획하고 있었고, 나는 일찌감치 참석의사를 밝힌 터였다. 그런데 아내가 아빠캠프일정이 5월 마지막 주로 잡혔다고 웬만하면 아빠캠프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라고 강권하였다. 나도 아내나 딸이 없이 아들과 둘이서만 1박 이상의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존 선약을 변경하고 아빠캠프를 참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조건이 부천YMCA에서 개최하는 부모교육을 3회 참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조건이 탐탁지 않았으나, 아빠캠프 참석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일단 참석하기로 하였다. 우선 뭐라도 배우는 것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앞섰다. 3회를 모두 참석한 지금 드는 생각은 아빠캠프를 참석하기 위해 아버지강좌 3회를 모두 참석한 자체가 내가 한 아이의 아빠로서 노력하는 흔적이었고, 그 노력이 결코 어렵지 않으며, 이런 노력의 자세를 앞으로 내 자녀들이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3번의 강좌의 짚막한 내용과 그에 대한 감상이다.

2019. 5. 2. 19:30에 실시된 첫 강좌는 부천YMCA의 김기현 사무총장님의 ‘이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좌였다. 강사님은 17년여전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찍은 사진을 설명하시면서,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내 인생의 화양연화였던 것 같다.”고 하셨다. 대부분의 아빠들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대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관계로 바쁘게 지내고, 이를 핑계로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그렇다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50대 후반이신 강사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 요즘 대중문화나 언론 등을 통해 비춰지는 아버지의 모습 등을 예시하면서, “가정은 사회의 기초”라는 변하지 않을 기본명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충실하게 충족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강사님은 사이토 사토루의 “부모의 역할은, 품에 안는 것(홀딩), 자식들의 행동에 한계를 설정하여 욕구 불만을 일으키는 것(리미트 세팅), 자식 떼어내기(디테치먼트)라는 세가지로 요약되는데, 이중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은 아버지가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설명하셨다. 부모의 역할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분담 부분은 너무 가부장적이고 반페미니즘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 외 “우리들은 좋은 아버지와 나쁜 아버지의 경계를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아버지들이 있을 뿐이다.”는 강사님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2019. 5. 9. 19:30에 실시된 두 번째 강좌는 전(前) KBS PD이시자 현재 뇌과학 칼럼리스트, 작가로 활동중이신 신성욱 강사님의 ‘놀이, 두뇌를 깨우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강좌였다. 이 강좌의 핵심은 “뇌는 근육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몸의 일부이고 20여년에 걸쳐 자라는데, 뇌가 자라면서 신체, 생각, 마음, 지능 등 자아를 형성하는 모든 것도 같이 자란다. 인간이 이러한 인간의 뇌를 만드는 방법은 ‘모방, 따라하기’가 기본적인 공법이다. 결코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것 등으로 인간의 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사자 등 고등 포유동물들이 놀이를 통해 생존술을 익히듯, 인간도 놀이를 통해 ‘나 아닌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교감하는 능력’, 소위 휴먼스킬, 즉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 즉 소위 ‘Free Play’가 인간지능의 성장, 뇌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빠들은 가장 중요한 직업적 안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함부로 아이들의 놀이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회복가능한 부상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자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이야기를 들었던 것 언제였던가?’라는 것이다. 우리 아빠들도 TV에 나오는 아빠들처럼 항상 여행을 다니면서 자녀들과 같이 놀아주거나 내일 자녀들에게 그림동화책을 읽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비록 아이들이 잠들어 있거나 졸린 눈으로 아빠를 맞이하더라도,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나도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 너도 열심히 놀고 배워라.’라는 식의 짧은 말이라도 해주면 되는 것이다.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몸으로 눈

빛으로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해주자.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는 늘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인식을 품게 되고, 아이가 어긋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나는 이번 아버지 강좌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위 강사님의 강의에 공감을 하시고, 실제로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아빠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2019. 5. 11.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이뤄진 ‘아이와 함께 하는 숲놀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주 가는 춘덕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놀아보는 것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몸으로 실천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나는 이상과 같은 세 번의 아버지 강좌를 통해 나의 아버지됨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리해볼 수 있었다. 강사님들, 이 강좌를 준비해주신 부천YMCA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오월의 마지막 주말에 있을 아빠 캠프가 나와 내 아이, 내 아이의 친구들과 그들의 아빠, 캠프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모두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나와 아이들, 우리 모두의 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이Y

북·중·접경지역 평화기행

압록에서 백두까지



최 정 용
(어린이Y)

- 기간 : 5월 3일(금)부터 5월 6일(월), 3박 4일
- 참여 :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어린이Y 17명
- 우리가 가본 곳
 - 1일차 <중국 연길> 용정중앙교회, 서전서숙터, 은진중학교터, 운동주생가, 명동학교터, 일송정
 - 2일차 <송강하> 백두산, 금강대협곡
 - 3일차 <집안> 광개토대왕릉, 광개토대왕비, 장수왕릉, 환도산성, 천추묘 압록강쾌속보트(북한접경지역)
 - 4일차 <단동> 압록강단교, 심양공항

5월 3일 중국에 가는 날이었다. 설레면서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 없이 가는 첫 번째 해외여행이라 긴장도 되었다. 그러나 친구들을 만나니 긴장도 다 사라졌다.

비행기를 타고 연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연길이라고 한국어로 써져 있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가이드 선생님을 만나고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중국음식이라 입맛에 맞지는 않았다. 그리고 독립운동과 항일 정신의 상징인 소나무와 정자가 있는 일송정, ‘선구자’노래로 유명한 해란강과 용문교, 은진중학



교, 용정중앙교회, 서전서숙, 3.13반일의사릉, 15만원 탈취지도 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윤동주 시인의 생가였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다.

5월 4일 기행에 간 모든 아이들과 내가 기대한 백두산에

가는 날이었다. 이 날 만큼은 내가 한 달도 넘게 안 입은 내복을 입는 날이었다. 호텔에서 30분 쯤 이동하여 백두산에 도착했다. 아무리 백두산이지만 전날 너무 피곤했는지 나와 아이들은 버스 안에서 잠을 잤다. 그러다 어디선가 들어본 음악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다. 바로 한국 트로트 노래였다. 그때부터 창박을 보기 시작했다. 양쪽으로는 눈이 쌓여있고 손만 뻗으면 거대한 봉우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백두산을 거의 다 올라갔다. 그리고 계단 1442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50개 까지는 장난치며 걷던 아이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분위기가 전쟁터가 되어갔다. 그렇게 전쟁터 같은 분위기에서 천지까지 올라간 나는 천지를 보고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다. 정말 애국가, 배경화면에서만 보던 그 웅장한 천지가 내 눈 앞에 펼쳐진 것이다. 산을 내려갈 때는 나와 아이들 모두 웃으면서 내려왔다. 그리고 천지만큼 멋진 금강대협곡도 보았

다. 그렇게 두 번째 날 일정이 끝났다.

5월 5일 어린이날의 아침이 밝았다. 이날은 가장먼저 사회책에서 보던 광개토대왕릉비를 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웅장했다. 그리고 장수왕릉, 국내성 성터 모두 봤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점심 식사다. 북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다큐멘터리와 뉴스에서만 보던 북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주었다. 음식도 이번 기행에서 가장 맛있었다. 밥을 모두 먹으니 갑자기 노래를 5곡 정도를 불러주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중1인 나와 친구,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근처 슈퍼마켓에서 사왔다.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재미있게 놀다가 잠을 잤다.

5월 6일 대만에 마지막 날이었다. 마지막 날은 아침에 압록강 철교를 보고 밥을 먹고 바로 공항으로 갔다. 마지막 날 만큼은 선생님이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주셨다.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도서관 같았다. 공항과 비행기에서 까지만 해도 장난을 치고 즐거웠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친구들과 동생들을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섭섭했다. 그런데 짐을 찾고 나가니까 부모님들이 준비하신 팻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섭섭한 마음은 사라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웃음만 나왔다. 이렇게 기행이 끝이 났다.

이 기행을 통해 조선족들의 아픔과 분단의 아픔도 느끼게 되었다. 나와 함께 기행을 간 중1친구들 그리고 모든 아이들, 선생님들, 가이드 선생님, 기사님 모두 이번 기행이 정말 행복했던 기행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행을 보내주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춤. 그 놀라운 순간

곽 동 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특성화사업팀장)

사람들은 춤을 추었다. 그들은 공유하고 있는 스텝과 움직임이 있었고 마음껏 신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누가 알아주던 말던 다만 춤을 추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많은 여행의 순간이 머리 속에서 지나간 후, 지금 이 순간이 730여일 간의 나의 세계 여행 중에서도 손꼽히는 놀라운 기억이 될 거란 걸 알았다.

사람들의 춤이 공기를 때렸다. 북보다 더 한 진동이 피부 한끝 한끝을 스쳐갔다. 아주머니들의 당당함, 청년들의 열정, 할아버지들의 힘, 소녀들의 활기가 마구 뒤엉켜 갔다.

좀 전까지 수줍었던 소녀의 눈은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고작 이 걱정 of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소녀의 춤이 공기를 흔들어서 심장 박



동과 어지럽게 공명했다.

이 걱정의 공간이라면
애벌레가 나비 되듯 새로
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곳을 다시 찾는다면 나
는 나비가 되고 싶어서 가
는 것이겠지.



뿌리학교는?

서아프리카의 전통문화를 익히고 그것을 한국 문화와 접목시켜
공동체 문화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7년, 2019년 2회 진행한 청년문화예술 기행입니다.
방문국은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이구요, 수도인 와가두구와
제2의 도시 보보디올라소 부터 생태관광지와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전통 문화예술 워크샵과 공연을 수차례 진행했구요,
자연과 문화를 살펴보는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서아프리카 전통 음악과 춤을 수련하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했구요, 향후참가자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댄스

-서아프리카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공동체 워크숍 안내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7시 / 문의 : 회원운동팀 325-3100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집단 율화병(鬱火病)



박 종 훈

(부천YMCA 중경 이사장, 삼화한의원 원장)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마감을 보름 앞두고 180만 명을 넘어섰다. 여당의 해산 청구도 30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신문고’가 찢어질 지경이다.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른다. 마치 홍수로 막혔던 독이 터진 듯하다. 4년 전 북악산을 울렸던 ‘촛불혁명’의 기세를 보는 것 같다.

한때 하늘을 찌르던 문정권의 지지도가 절반으로 떨어져 해매는 시점에 뜻밖의 현상이다. 우리 사회가 지지부진한 적폐청산, 개혁입법의 난항, 남북협력의 위기, 경기의 후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때가 아닌가? 때를 틈타 보수 세력, 아니 적폐세력까지 힘을 얻고 좌충우돌, 망언과 케케묵은 색깔론을 꺼내며 기승을 부리는 때가 아닌가?

이번 사태는 세월호 막말과 5.18 망언으로 염증을 느끼던 차에 패스트트랙의 물리적 저지에 따른 민중의 분노가 불을 댕긴 것 같다. 민중의 깊은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려대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거리낌 없이 방해하는 무리의 행태는 절망에 가까운 분노를 자아냈다. 결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저승사자로 나서게 생겼다. 만약에 예전처럼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유아무야 한다면 분명코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나 모두를 태울 것이다.

오장육부는 서로 상생상극하면서 인체를 소통,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한다. 거꾸로 장기가 울체되면 조화가 깨지고 병이 생긴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흔히 심화병(心火病)이라고 부르는 울화병(鬱火病)을 큰 병으로 친다.

심(心)은 오장육부의 우두머리 장기로 화(火)를 주관한다. 화(火)는 성질상 위로 솟게 되어있다. 하지만 건강한 인체에서는 화(火)가 밑으로 내려가고 수(水)가 올라와 서로 구제하여 균형을 이룬다. 그것을 수승화강(水昇火降), 수화상제(水火相濟)라 한다. 이런 심의 화가 순환되지 않고 울체가 될 때 심화병(울화병)이 생긴다. 이때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고 식욕이 줄고 입이 마르며 목에 뭔가 걸린듯하고 깊은 잠을 못자고 두통, 흥협통이 나타난다. 또 눈이 충혈 되고 집중할 수 없고 정서불안과 울둑뻔(분노조절장애)이 솟구치곤 한다. 이런 증상이 장기간 계속되면 협심증이나 담석증 같은 ‘속앓이’와 신경성 질병으로 악화된다.

‘정당해산 청원’의 청와대 답변은 뻔하다. 그들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원론적이고 정치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면 다르다. 그동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온 민중의 울화를 풀어주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바람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풍선은 터지게 마련이다. 울화가 치밀 때는 소리를 지르든지, 깡통이라도 차든지, 무슨 방법이든지 푸는 게 약이다. 북악을 울리던 촛불혁명의 함성이나 청와대 청원이 바로 그런 약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나 사회는 전국적, 집단적인 울화병을 일으켜왔다. 우리사회의 부조리, 불평등, 부정의에서 비롯된 울화병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 더욱이 대를 이어 미래세대까지 미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보험 재정에도 많은 짐을 지웠다. 이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상배 무리들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런데 외골수 윤뽕뽕이들이 블랙코메디로 민중의 집단 울화병에 바람구멍을 내고 풀어주고 있다. 이리다간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의사(大醫治國)’가 될까 걱정이다. 이번의 청원으로 국민과 나라의 울화를 조금이라도 풀어준다면 우리사회의 자정과 균형과 조화에 큰 약(藥)이 될 것이 틀림없다.

한국YMCA 새 목적문

한국[부천]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 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4월 16일, 부천YMCA 창립 37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유진생 선생님이 친필로 쓰신 한국YMCA 새 목적문을 김영주 이사장에게 전달해 주셨다. 1976년 제정되고 한국YMCA 창립 100주년인 2014년에 개정된 한국YMCA 목적문은 YMCA의 존재이유요, 이념이며 정체성이다. 창립 37주년을 맞은 부천YMCA 회원들과 한국YMCA 신구 목적문 비교를 함께 나누며 뜻을 새기고 50주년을 준비하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신구 목적문 비교 도표>

	구 목적문 (100자)	새 목적문 (127자)
1	기독교청년회는	한국(부천)기독교청년회는
2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3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4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5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6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 향상과 새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 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7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버지 교실

故 서태경 고문 5주기 추모사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강 창구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서태경!

영혼을 가슴에 묻어놓고 그토록 불러보고 싶었던 그리운 이름 서태경 고문님!

오늘은 소리쳐 불러보고 싶습니다. 서태경 고문님~

고문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솔선 수범하셨던 고문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었던 고문님께서 우리 곁을 그리 쉽게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큰 고목나무가 넘어지는 느낌과 같이 당신이 가시던 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난히 정도 많으시고 다정다감하시며
우리들이 처한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자
처하며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또 모임 후 당신과 토론
하며 시원한 생맥주 한잔 부딪히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웁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시던 그날의 당신처럼 머리카락
이 희끗해진 우리들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들을 남겨놓고 당신은 무엇이 바
빠서 그리 먼저 가셨나요?

서태경 고문님!! 오늘 하루라도 큰소리로 수 천 번이라도 외쳐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세상을 향한 열정을 배우며 실천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세상을 향한 너그러움을 배우고 느끼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문님 잠시 주위를 둘러보아 주십시오!

당신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배우자 장영애 형수님
과 가족들, YMCA 김기현 사무총장과 박명애 부장님, 이용생 아버지교실 회장
과 회원가족들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다시 한 번 당신의 삶에 대
한 열정과 너그러움을 그리워하며 당신을 추모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태경 고문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2019년 3월 31일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며 강창구 올림

걷기: 걷는 일



왕 정 현
(광장기자단, 꿈품등대 독서지기)

나는 걷기를 좋아한다.

매 걸음을 걸으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간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 집중이 흐트러지지만

결국 걷는 일은 움직임 속의 조용함을 느끼는 일이다.

“우리 결혼식 대신 산티아고 순례길 걸을까?”

〈세상에서 가장 긴 결혼행진〉은 웨딩드레스와 택시도 대신 등산복과 운동화, 8kg과 11kg의 가방을 메고 하루 평균 20km씩 42일간 9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걸으며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아마도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카미노는 '잠시 멈춤'의 시간일 것이다.

내 그림자 옆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는 네 그림자. 새삼 다정해 보이는 그림자를 보니 괜스레 마음이 몽클하다.

매일이 특별하지 않은 여행 같다면 좋겠다. 설레었다가, 힘들었다가, 또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다시 기대하고, 서로가 있어 안심하는 그런 일상.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내 옆에는 네가, 네 옆에는 내가 있을 거니까. 혼자가 아닌 둘이서 함께 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산티아고 순례길이란?

예수의 열두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의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길이다. 예전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의 길이었으나, 현재는 전 세계에서 도보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스페인 북부 해안을 따라 걷는 북부길, 포르투갈 해안길 이외에도 여러 코스가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길은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하는 프랑스길이라고 한다.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하자마자 피레네 산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넘어서면 어느새 스페인에 도착, 그렇게 30여일을 걸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이어지는 약 800여킬로의 길이다. 저자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 믿었던 곳, 피니스테레까지 900km를 완주한다.

〈세상에서 가장 긴 결혼행진〉은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출판으로 완성된 책이다.

개인의 활동이 작은 문화가 되고 그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다. 그 움직임을 함께 하는 사람들. 그 안에 우리가 있다.

* [참조]

세상에서 가장 긴 결혼행진 / 이혜민 / 900KM / 2016.10.07.

YouTube/900km studio

facebook.com/900km

Instagram.com/900km_offi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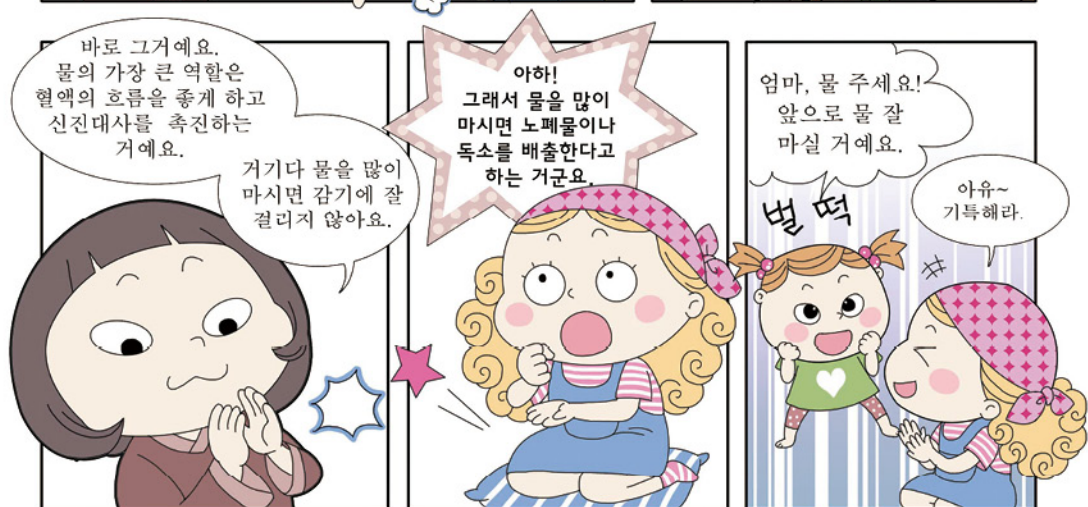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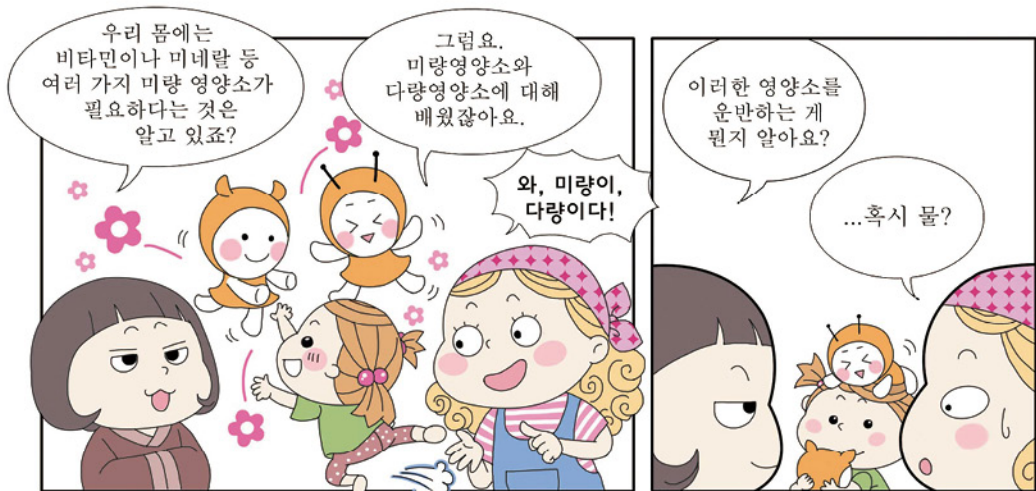
밥상톡톡

등대밥상

밥상 열, 물 제대로 알고 마시자!

글, 그림 연은미





물과 감기가 관계가 있다구요?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요. 기관지나 위장의 점막 등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장소가 좋은 물에 의해 촉촉해져 있으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기관지의 점막이 건조해져 가래나 점액이 나와요. 수분이 부족하면 이것이 기관지에 달라붙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요.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봄은 보는 계절”



한 면 회
(전 부천YMCA 이사)

봄의 어원이 ‘불옴’에서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봄은 ‘불이 옴’이니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봄은 영어로 스프링(spring)이니 샘이라는 뜻입니다. 봄이 되면 겨울에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아 샘에서 물이 퐁퐁 솟아오릅니다. 또 봄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시냇물은 졸졸졸 노래하며 흐릅니다.

봄은 춘(春)인데 춘(春)은 ‘뽕나무 상(桑) + 날 일(日)’입니다. 뽕나무의 마른 가지가 따뜻한 햇볕의 불과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받아서 푸른 새순을 내는 모습입니다. 봄은 직녀가 뽕나무 잎으로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게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봄의 대표적인 상징은 꽃입니다. 꽃은 식물이 열매를 맺어 후손을 퍼뜨리기 위한 생식기관입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봄꽃 중에서는 마치 불이 붙은 듯 진홍색으로 물들이는 진달래꽃이 우리의 정서에 딱 맞습니다. 조상들은 봄나들이 가서 진달래꽃을 구경하고 꽃을 따서 화전을 부치고 술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봄이 오면 동물들도 각각 자기의 짝을 찾아서 번식을 합니다. 짝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구애 작전은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짝을 찾지 못한 동물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여기서 ‘불쌍하다’의 뜻은 ‘짝이 없다’입니다. 우리말의 “불쌍(不雙)하기 짝이 없다”와 같습니다.

봄은 지수화풍(地水火風)에서 풍이니 바람의 계절입니다. “술술 부는 봄바람 쌓인 눈 녹이고...”에서 봄바람은 눈을 녹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녹여서 바람이 나게 합니다. 봄은 ‘보다(見)’의 명사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살펴보고 찰리보고 알아보고 달아보며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 눈이 맞으면 정이 들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랑이 생깁니다.

사계절 춘하추동(春夏秋冬)은 생장수장(生長收藏)이니 봄은 생의 계절입니다. 생은 ‘날 생’이니 ‘나다’, ‘태어나다’, ‘불에 타기 시작하다’입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 사랑에 빠져 새로운 생명을 만들게 됩니다. 옛날에는 봄이 되면 눈이 맞은 남녀가 밤에 동구 밖에서 은밀하게 만나 은행 씨를 나누어 먹으며 솟나무와 암나무를 뽕뽕 도는 사랑놀이를 했습니다.

봄은 앞으로 살아갈 일 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봄은 곡식의 씨를 뿌리는 계절이기에 씨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가을까지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봄에는 배가 고파도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착하다는 뜻의 선(善)은 양을 잡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유목문화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화(和)는 ‘고를 화’이니 벼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이웃과 고르게 나누어 먹는 농경문화의 덕목입니다. “밥은 봄처럼 따뜻하게, 국은 여름처럼 뜨겁게 먹어라” 옛말대로 따뜻한 밥을 같이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 · 부천Y 등대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산



생활 물류 조직이 대규모화되면서 최근 몇 년간 가공품, 일회용품이 급증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해산하고, 등대학습운동, 생활운동, 먹을거리운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3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제22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어 대의원 72명, 참관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3월 26일(화) 오전 10시에는 해산총회가 조합원 35명, 참관인 7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은 6월말에 일괄적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반기 클럽대표자회의



지난 4월 27일 4.27 DMZ 평화 인간띠잇기 행사와 함께 상반기 클럽대표자회의가 있었습니다. 등대 김홍여 마을지기, 디딤돌 노경희 회장, 녹색가게 오현수 부회장과 김영란 서기선생, 쌀한톨 강선순 지기와 이선화 부지기, 지락피락의 연은미 부회장 외 이사회에서 김영주 이사장과 허상윤 부이사장, 김홍근, 노진영, 이시영,

정종원, 최진우 이사와 주성돈 시민사업위원회 위원, 서예교실의 유진생 선생,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이지용 학생이 함께 평화를 위한 한 걸음에 동참하며, 2019년 부천Y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간일정을 나누며 클럽 회원님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린합창단 복사골합창제 참여



지난 5월 5일, 부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부천시가 주최한 제43회 복사골합창제가 열렸습니다. 부천 관내 15개 합창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부천YMCA 그린합창단'은 오윤형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세노아', '경복궁타령' 두 곡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며, 부천시민들에게 완연한 봄의 생기를 전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YMCA 지도자들의 평화순례 〈중국 상해·항주·남경〉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하여 연맹과 7개의 지역YMCA의 이사, 회원, 실무자 35명 참여하였으며, 부천Y에서는 회원운동팀 박명애, 박다정 실무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항주-서당-가흥-항주-남경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주요 활동지들, 남징대학살기념관을 돌아보고, 상해YMCA와 남경YMCA, 애덕기금회를 방문하여 양국의 시민활동에 대해 나누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천YMCA 37주년 창립기념예배



지난 4월 16일은 부천YMCA 37번째 생일 맞는 날이며, 더불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1부 떼제공동예배를 드리며 세월호의 그날을 기억하고 안전화 평화를 일상에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기원하며 다짐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그동안 부천Y를 위해 애정으로 헌신하신 원종호, 박중훈 증경이사장, 추귀남 이사, 권소연 간사 등 네분께 공로패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베트남 평화순례를 함께 다녀온 평화순례팀의 특송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올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Y회원으로 '내가 평화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입 실무자 교육



지난 4월 19일, 올해 부천 YMCA에 새로 입회한 신입실무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나이트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YMCA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태동하였으며, 부천YMCA는 어떤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새로운 실무자들이 부천YMCA와 함께 YMCA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각자의 소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웅, 김이슬, 김귀영(유아교육팀), 이진애(어린이교육팀), 정지민, 유은미(총무팀), 최경희, 박은영, 이장수(시니어클럽) 선생님, 환영합니다!!

시민평화대학



부천시민평화대학은 갈등조정과 평화활동을 총3년에 걸쳐 기초·심화·실천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2018년 제1기 부천시민평화대학 회복적 정의 워크숍 기초과정에 이어 2019년 4월 1일부터 심화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화과정은 분야별 진행자 역량강화를 위해 평화교육, 갈등전환, 전문조정자훈련, 트라우마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11월 18일까지 총4단계(7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작년에 기초과정을 이수한 시민 24명이 현재 심화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기 부천시민평화대학 기초과정이 5월 7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갈등조정자양성을 주제로 총25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19일까지 총 4단계(8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랑의 교실

2019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랑의 교실'은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과 원미경찰서가 지역사회의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으로 올해 부천YMCA 청소년 상담실과 함께 매월 진행하며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2차 사랑의 교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 기존의 처벌중심의 사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교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녹색가게 토요일농장터 개장



2019년 4월 13일 제16회 토요일농장터가 개장을 했습니다. 이후 11월 2일까지 부천시청 앞 차 없는 거리 인도에서 매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을 하여 평균 120~130여팀이 참가, 약 300~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원순환은 물론 수익금

의 10%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미어울마당 지하 1층에 있는 교복은행에는 부천 관내 60여개 학교의 기증 받은 중고 교복이 상설로 판매되며, 2월 중순 교복집중 판매기간에는 270여명이 접수하고, 870여명에게 교복이 판매되어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의 현장 중심에서 언제나 섬김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녹색가게 선생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지구와 사람의 건강한 공존, 그리고 자원순환을 위한 녹색가게 운동과 실천에 YMCA 회원님들의 열렬한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금개구리 대탐사



5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양서류 전문가, 환경생태연구재단, 시민단체 활동가 및 생태전문가 등이 부천대장 신도시 예정부지에서 금개구리 대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개구리는 등에 선명한 금색 두 줄과 노란색 배, 눈동자도 반짝반짝 금색 테두리로 빛나는 개구리로, 하루 종일 물웅덩이에서 10m 이상 움직이지 않고, 행동 범위가 넓지 않아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2005년

국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입니다.

청소년기후소송캠프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서울시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캠프에 김현준 어린이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기후소송단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 제4차 캠프에서는 청소년 기후소송단 활동소개, 「파란하늘 빨간지구」 저자인 조천호 대기과학자(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의 지구가 건널 수 없는 환경과 기후변화 이야기, 청소년들이 본 기후소송 해외사례와 기후소송을 위한 헌법공부, 그리고 '524 청소년기후행동-미래를 위한 금요일' 세계도시와 한국 참여현황, 지역별 준비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 주요일정 •



MBD 실무자 소위원회

일시 : 5월 28일(화) 오후 6:10

장소 : 4층 사랑방

한국간사회 영성분과 정기모임

일시 : 5월 30일(목)~31일(금)

장소 :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장들녘 금개구리농부 모내기

일시 : 6월 1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 대장들녘 금개구리논

제41회 광장기재단 회의

일시 : 6월 4일(화) 오후 5:30

장소 : 4층 사랑방

정기이사회

일시 : 6월 11일(화) 오후 7:30

장소 : 6층 신나는방

간사회

일시 : 6월 13일(목) 오후 6:30

장소 : 4층 사랑방

실무자 에니어그램 영성훈련

일시 : 6월 14일(금) 오후 4시

장소 : 4층 사랑방

시민사업위원회

일시 : 6월 17일(월) 오후 7시

장소 : 5층 나눔방

청소년사업위원회

일시 : 6월 25일(화) 오후 7시

장소 : 5층 나눔방

아기스포츠탄

아빠랑캠프

일시 : 5월 25일(토) 오전 10시~26일(일) 오후 1:30

장소 : 엘리시안 강촌 콘도

섬김지기 연수

일시 : 6월 14일(금)~15일(토)

장소 : YMCA 화관

7세 2차 들살림캠프

일시 : 6월 27일(목)~28일(금)

장소 : 양평 고래실마을

1학기 공개수업

일시 : 5월 31일~7월 첫주

장소 : 각반 교실, 5층 체육관

어린이

역사기행단

일시 : 6월 15일(토)

장소 : 성북동 문화탐방(만해공원, 심우장)

자연기행단

일시 : 6월 22일(토)

장소 : 북한산 소귀천

여름 하룻밤캠프(1학년)

일시 : 6월 28일(금)~29일(토)

장소 : 고래실마을

여름 하룻밤캠프(2학년 이상)

일시 : 7월 5일~6일

장소 : 한마음수련원

체육교육팀

어린이 축구대회

일시 : 5월 26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 고양시 중산레포츠공원

6월 수영등록

재등록 : 18일(화)~24일(월)

반변경 : 25일(금) / 신규등록 : 26일(월)

청소년상담실

제1기 부천시민평화대학 심화과정

일시: 5월 20일~6월 24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제2기 부천시민평화대학 1단계

일시: 5월 7일~6월 11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6층 신나는방

청소년 '사랑의 교실'

일시: 5월 22일(화) ~ 24일(금)

장소: 1층 나눔터

524 전세계 청소년 기후행동

'미래를 위한 금요일'

일시: 5월 24일(금) 오후 3시~5시

장소: 부천시의회 앞

청소년 평화감수성 & 또래상담교육

일시: 6월 5일(수) ~ 28일(금)

장소: 역곡중, 성주중, 상도중, 상동중, 부흥중

• 클럽일정 •

사진클럽 <선용>

정기모임 및 월례회

일시: 6월 1일(토요일) 사진출사

6월 14일(금요일) 오전 11시

6월 27일(목요일) 오후 5시

장소: 소사 스튜디오

그린합창단

정기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6층 신나는방

아버지교실

월례회

일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 5층 나눔방

난타소모임(아도라)

매월 1주, 3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6층 신나는방

청소년상담클럽 <디딤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식생활교육클럽 <쌀한들>

정기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월례회

일시: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G樂P樂

정기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장소: 5층 나눔방

월례회

일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5층 나눔방

녹색가게

토요나눔장터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 부천시청 중앙공원 방면 인도

운영위원회

일시 :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5층 나눔방

자원봉사자 야유회

일시 : 5월 31일(금) 오전 10시

장소 : 인천대공원

등대

정기모임

일시 : 주1회, 각 가정(저녁등대 격주 1회)

장소 : 촛불 가정(저녁등대 YMCA회관)

지기월례회

일시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6층 신나는방

저녁등대 지기월례회

일시 : 7월 11일(목) 오후 7시 / 장소 : 4층 교실

등대위원회

일시 : 6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4층 사랑방

촛불운동회

일시 : 6월 1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5층 체육관

점배 소모임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6층 신나는 방

아프리카 댄스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7시

장소 : 6층 신나는방(둘째주는 3층 해맑은반)

아빠농구단 소모임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 5층 체육관

붓질공부 소모임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6:30~9:00

장소 : 5층 나눔방

몸살림 소모임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30

장소 : 4층 햇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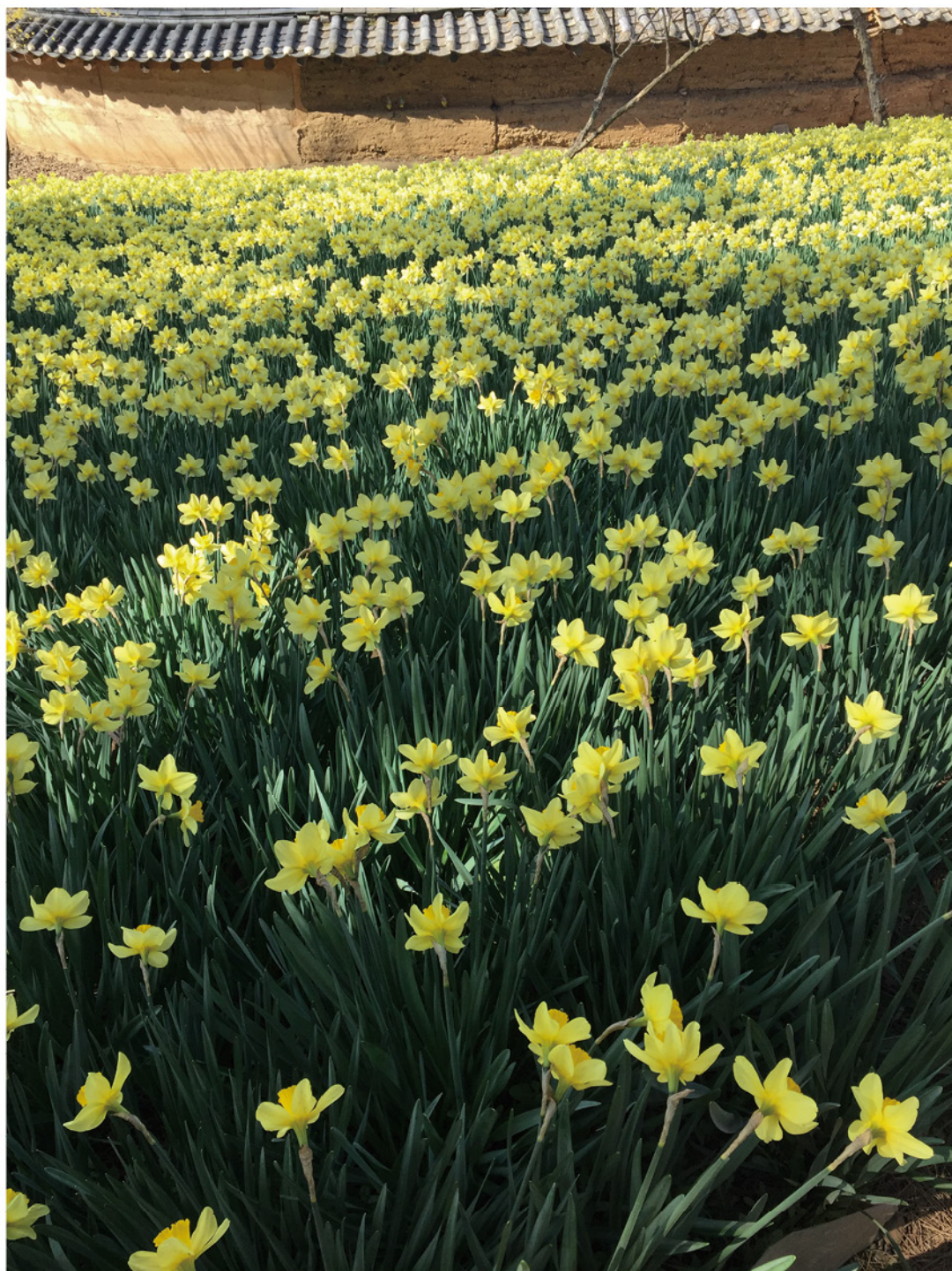
발행인 김영주 편집인 김기현 발행일 2019년 5월 30일 발행처 부천YMCA

광장기지단 박종훈, 한정숙, 왕정현, 노진영, 김홍여, 연은미, 김지현, 박명애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69번길 42(중동)

전화 032)325-3100 팩스 032)325-3108 홈페이지 www.pcymca.or.kr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북한 3,000가정에게 밀가루 보내기

1. 취지 및 배경

유엔 조사단의 일원으로 지난 3월, 2주간 북한을 방문했던 세계식량계획(WFP) 대변인은 "실제로 본 북한의 식량난은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WFP와 FAO(식량농업기구)가 파견한 8인의 조사단의 일원으로 북한 전역의 37개 군을 돌며 가정과 탁아소, 배급 센터, 정부 기관 등 광범위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현지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후,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36만t이라며 북한인구의 40%가 식량부족 상태라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구호단체들은 핵과 미사일 위협이 초래한 대북 압박에는 동의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이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인권에 민감한 선진국의 경우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을 구분하여 스위스 정부는 작년 장애인노인 보호 및 식수에,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유엔아동기금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을 통해,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도 유엔아동기금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YMCA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하여 여러 YMCA와 국제적인 구호단체(화이트 스톤, 白石)를 통해 북한의 가정에 밀가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1) 북한 3,000가정에게 3개월분 밀가루 보내기

(1) 모금기간 : 5월 20일(월) ~ 6월 7일(금)

(2) 지원액 : 북한주민 3,000가정에게 밀가루 3개월분 25kg 지원

- 모금목표: 75톤, 3천 5백만원(운송비 포함), 모금액 전액이 전달됩니다.

2) 지원절차

(1) 6월 10일경 모금액 전달

(2) 7월 10일경 밀가루 선적(블라디보스톡, YMCA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확인)

3) 화이트 스톤(白石)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며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 시절 창립된 국제적인 구호단체로 이사회는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한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후원계좌 : 농협 216023-55-000957(예금주: 부천기독교청년회) / 1구좌 15,000원 한 가정 3개월분 밀가루 25kg은 11,700원(운송비 포함)입니다.